

신앙의, 양심을 따르십시오 (고전 10:23~11:1),

하나님 찬양 드리기

- 예수는 나의 힘이요 (새찬송가 93)
- 나의 안에 거하라 (경배와 찬양 50)

Focus, 성도는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마음 열기 |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 본문 읽기 고전 10:23-11:1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당시 고린도는 우상 숭배와 성적 방종이 널리 퍼져 있던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성도 간에 자랑과 시기뿐 아니라 음행과 송사의 문제가 있었고, 이로 인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논란 역시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관한 문제를 8~10장에 걸쳐 다룹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두고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먹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질문보다 우선 고려해야 할 것은 '그것이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가?'입니다.

> 말씀 나누기

1-1. 관찰과 묵상 |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칙을 무엇이라 제시하나요? (23~24절)

1-2. 적용과 나눔 | 다른 사람의 유익과 덕을 세우기 위해 내가 절제하기로 결단해야 할 자유는 무엇인가요?

2-1. 관찰과 묵상 | 바울은 시장의 음식을 먹거나 초청받아 식사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나요? 음식을 대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하나요? (25~29, 31절)

2-2. 적용과 나눔 | 음식을 먹는 문제 이외에도 옳고 그름을 구별하기 애매한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나누어 보세요.

> 말씀 다지기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되 그 자유를 바르게 행사할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 속에서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먼저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신의 신앙적 양심에 비취 거리낌 없는 문제라 할지라도 자신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지체나 불신자에게 주게 할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누릴 수 있지만 형제가 실족하거나 불신자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바울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절제하고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는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 어디에서든 먹고 마시는 일에 덕을 세우게 하시고, 제 삶이 영혼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무엇을 하든지 저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마음에 새기기 |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전 10:24)